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승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어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 법공양 페이지

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 이사갈 날짜 몰라 답답해요

문 이사 말씀이 나와서 저 공부경계와 상관지어서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이사인데 그 이사가는 것을 지금 빨리 들어가는 해야 되었는데,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풍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모두 맡겨 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갈러느냐, 갈래 인질래 지꾸 물어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던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말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인 말입니다. 아주 난감해서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나 스스로도 그렇구,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것이 잘못 맡겨졌는가, 여러 가지로 좀...  
답 이 말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맡기만 해서도 이게 좀 딱! 침을

# 일체만법이 모두 자기한테서 벌어져

### 15면에서 계속

고 그렇게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 본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업식으로 움직여서 윤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서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은 모양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의식·모습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자체가 하는대로 행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그런데 그 생활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움직여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었습니까? 경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 얽매이고, 알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이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단념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지꾸 지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무엇을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그 무엇이 그렇게 의증이 남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를 이렇게 생활로서 엮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빠졌으면 무효야. 하!하!하! 그런데 정신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할나할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이 법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아, 윤회하고 말할 건덕지가 뭐있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 올바른 관법 일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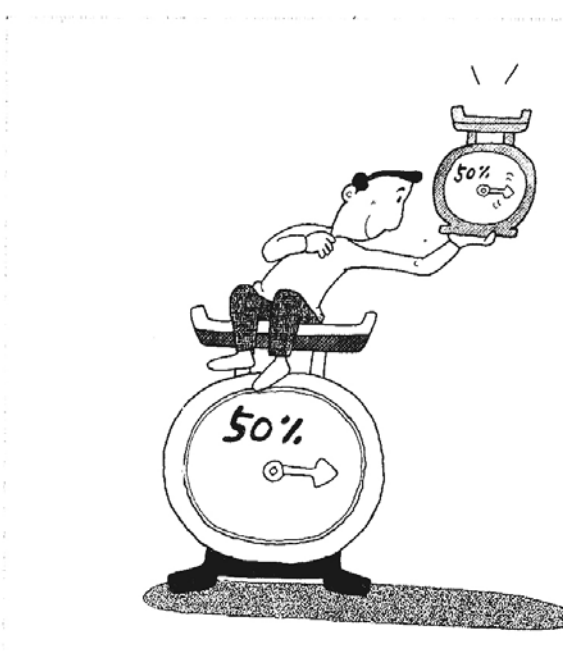
문 큰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하나까 그 주인공에다가 몰록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 보면 예전부터 믿어왔던 내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 생활에 늘 스님할 수는 없겠지만 주인공을 찾는데 큰스님께서는 관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 할 수 있는지를 그 관하는 관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대 얘기 했는데도...하하하!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고해 보겠다 하고 앉았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릴 수 없다면 죽을 것이고, 내 쉬고 들이쉬 수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숨을 쉬고 그대로 살아있는 바로 그놈이 있었니까 그 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쉬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쉬고 내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쉬고 내는 건덕지가 뭐 있어. 아무 것도 없잖아.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하누.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있다 이 소리야. 그래도 이해가 안갑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건데 실제로 관할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하하하...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안하는 것도 그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야. 그 안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 관념적인 생각이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쉬라 이 소리야. 하루종일 24시간 얘기를 안하고 그것을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 끊어지긴 뭐가 끊어져, 허허 쉬임없이 그대로 돌아가는네.

그럼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하하하... 아,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생각을



그림·최주현

문득 해도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버려. 그 공간이 그냥 얽여져버려. 이렇게 묘한 얽여. 이대로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관념적인 생각이 이거야. 하루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이.

### 게임와도 통하는 마음

문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할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얼마전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에게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개미가 물에 씻겨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개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 개미야! 제발 부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종단을 전부 치워 버렸습다. 부처님 한분만 모시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기를 마구 때려서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이 불전을 치우면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내한테로 다 놓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 데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은 데서 너는 내고, 나는 난데서 치우니까 그 쪽에서는 내몸을 치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곳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도라는 중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움직여 가지고 같이 이끌어주는 모든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고정됨 없이 돌아가는 이치 모르면 매이고 알면 벗어나니 그대로 부처님 법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윤회하는 것을 못느끼니까? 세계 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별성도 윤회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었으면 이 또한 벗지 그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 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에누리없이 자기한테서 자기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몸 받아서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고 해서 어린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에 한데 합쳐 삼합이 돼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려서 천지만별로 되어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것을 먹고 삽니다. 살아 나가는 데도 이것을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이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또 물을 먹고 땅을 흘리고 또 죽고, 물도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도량들을 만들고 바닷물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진대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 그런가? 윤회라는 것은 이름이 지 모두가 일체만을 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죽어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끝간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스님 제가 지금 살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입니다. 맥은 이름을 몇 개 가졌습니까?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죠. 사위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구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아 이런대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오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는 자동적으로 애, 아무개가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 말을 하고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 부쌍한게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는 행동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하고 또 본래 주인공 마음에서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걸 과거에서 이어져오고 미래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없고 현재에 내가 지금 이자리에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기증명 자기만 가능...내 주인공에 놓아야

다 살 데서 살아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서 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게 '이후, 개미야'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래 그러면 제발 여기서 나가줘 하는 마음이 무심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그걸 저녁에 집에 들어 가보았더니 부엌 싱크대 위에 개미가 참 많았었는데 개미가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나도 모르게 아! 이상하게 그랬었는데 왜 개미가 한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들어 이상하게 개미가 좋아하는 설렁타나 뽕부스리기를 일부터 놓아보았지만 개미가 없는 거예요. 부엌과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에는 개미가 있는데 부엌에는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그곳도 개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지금 제 마음도 그래요. 그걸 느끼면서 아! 마음과 잘 현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가슴이 아팠었던 것이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그래 저는 그것을 느끼는 데요. 그것과 같은 이치인지 아니면 개미가 여기서 살기 싫어서 갔는지...

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포기를 보아도 껌치를 못하겠어요. 벌레도 사람이고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선지식들은 정신을 신고 주장자에 방울을 달아서 저렁저렁 달고 다니셨어요. 그소리를 들으면 밝히지 말고 미리 달아나라고, 그러니까 이 식을 하나 무정물이 전부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통이 속에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냐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것을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거든. 이래서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퇴워주지, 남이 사기를 칠려고 하는데도 여가선 벌써 자기가 자기사를 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이 있어서 이것을 알아서 몸통이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 저 뭘까? 의식이,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죽으니까 여기서 그만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그냥 와와와와하하, 한 발짝도 떼놓을 수 없지. 또 칼을 건너갈려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통에 있는 줄 알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봐 건너갈려 못하잖아. 배가 울 때를 죽어다니는 몇몇년 을 그 강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블랙홀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죠. 마음이라는 것이 타죽는게 어디 있고 타죽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기한테서 모든 일체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하고 세상이 들어 아니게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아서 알기 위해서는 놓고, 놓쳐 놓고, 또 놓쳐 놓고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내라는 존재를 써주고 그렇게 보름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각되는 그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하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못한 일이 있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 없습니다. 잊고저게도 이사를 가는데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못사는 사람이 차에다 이삿짐을 싣고 그 위에 사람도 타고 가야할텐데, 비가오면 영망이란 말야. 그래서 이사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날더러 해 주세 요가 아니다.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오게 해라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라고 그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TV에서 일기예보를 했었는데 이삿짐을 잘 갖다놓고 그날 저녁에야 비가 오더라 그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TV에서 일기예보를 했었는데 이삿짐을 잘 갖다놓고 그날 저녁에야 비가 오더라 그랬어요. 하하하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주는 겁니다. 물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것으로 한가지를 체험한 것일

### 우주 33천·35천 다른 이유

문 오늘도 법지리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어느날 수행자 한분이 "불교는 원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 "성경에는 35천이 있는데 불경에는 33천 밖에 없으니 우주를 다 건피하지 못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의 견해로 볼 때, 유위법으로 보면 사람이 겨우짜만 하지만 영체를 이탈한 성인의 경계로 볼 때는 삼천대천세계가 공인할 건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경과 경전에 차이가 나서 법부들을 혼동하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스님 한분이 앉아서 백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봐도 백지가 보지 않았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찌해서 글자 한 자 써 있지 않은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또 "과거만 봐서 되는 게 아닐세. 백성들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수승이 가는 겁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어렵듯이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자네는 내가 말을 해줘도 잘 모르니 이따 보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러이러하다"고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도를 보고 급제를 해서 박문수 여사가 되게 됩니다.

### 월간 송정빈